

북스

Books



◀테이트 현대미술관의 중앙홀 광경



▶고대 카탈루냐 건축 양식의 호안 미로 미술관.

‘인류의 보물’ 동서 미술관 순례

런던 템즈강 남쪽 기슭은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다. 한때 화력발전소로 변성을 누렸던 변화가 있었지만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상당기간 흉물로 방치됐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현대식 미술관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지금은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승지로 변신했다. 이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성공신화는 미술관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다. 미술관 안에서 관람객들은 개별 작품들이 내뿜는 아우라속에 빠지고, 미술관의 컬렉션이나 전시의 컨셉을 평가하며, 미술관 건축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한다. 이 때문에 미술관을 찾는다는 것은 곧 이러한 총체적 체험의 물결에 몸을 내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출간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100-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만프레드 라이어 외 지음·신성림 옮김)은 부제가 말해주듯 오늘날 핵심 문화인프라로서의 미술관의 위상을 조망한 책이다. 책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명 미술관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100 만프레드 라이어 외 지음

개인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5개대륙 40개국 미술관 100곳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가득하다. 미술관 설립과 소장품에 얽힌 일화에서부터 당대 작가와 컬렉터에 대한 일화까지 망라돼 있다. 100곳의 미술관 중엔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에르미타주미술관, 프라도미술관처럼 여행객들이 빼놓지 못할 여정 일정을 짚어 놓은 곳도 있다. 이밖에도 미국-이탈리아 전경에 유물 손상이 컸던 이라크박물관 등의 사례는 생생한 세계사의 기록이다. 이밖에 페루 국립고고인류학박물관, 리투아니아미술관, 터키 토포카피공전미술관 등 아직 우리와 먼 나라의 미술관도 사진으로 간접체험할 수 있다. 한국어판에선 우리나라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등 3곳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페이지마다 각 미술관의 화려한 건물과 컬렉션이 선명한 컬러사진과 함께 펼쳐져 책장을 덮는 순간 100일간의 미술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듯 뿌듯하다. (서경북스·4만8천원)

/북진원기자 jhpark@kwangju.co.kr

KBS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출간

KBS의 인기 역사 다큐멘터리 ‘HD 역사스페셜’(전 5권)이 세트로 묶여 출간됐다. 지난 1998년부터 방영된 ‘역사스페셜’은 2004년 종영됐다 마니아들의 프로그램 부활 요구에 힘입어 2005년 5월 ‘HD 역사스페셜’로 다시 태어났다. 다큐멘터리지만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통사(通史)적 접근을 시도해 주목받던 것이 출판평론가 표정훈씨의 맛깔스런 글솜씨와 더해져 책으로 변신했다. 1부에서는 선사시대에서 고조선을 거친 이 땅의 첫 나라 이야기가 유물과 유적을 통해 되살아난다. 2부에는 고대 국가 진화의 비밀을, 3권에서는 통일 국가의 등장, 4권은 고려와 조선을, 5권은 근대를 향한 역사의 선택을 각각 다루고 있다. (효형출판·4만4천원)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한승원씨 낙향 10주년 새 장편소설 ‘키조개’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68)씨가 낙향 10주년을 즈음해 새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저자는 ‘키조개’를 통해 존재의 시원 또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 고찰한다. 소설가에게 존재의 시원에 대한 고찰은 소설을 왜 쓰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소설 속에는 10여년 전 서울을 등지고 고향 장흥의 해산토굴로 내려와 집필하는 소설가 한승원이 등장한다. ‘나에게 있어 해산토굴은 “남마다 소설을 해산하는 자굴”이다. “곡신(谷神)=갯벌=연꽃=키조

개’라는 등식을 ‘씨앗 말’(모티브)로 만들어 놓고 ‘해산’(소설)을 기다리는 것이다.

소설은 ‘자굴의 권력자’인 50대 초반의 허소라가 약속도 없이 한승원의 작업실 해산토굴에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허소라는 ‘여성성과 모성성’을 나타내는 곡신의 상징으로 읽힌다. 이후 이야기는 허소라와 그를 둘러싼 남성들로 포커스가 옮겨진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해산토굴 인근의 연꽃바다 앞에 별장을 짓고 사는 통화작가이자 소설가인 허소라. 50세가 넘었음에도 매월 달거리를 하는 허소라의 곁에는 홀아비 변호사 이계두, 재량 박남철, 평생 자신을 짝사랑한 연후, 그의 노총각 동생 영재 등



그녀를 노리는 수많은 남성들이 뿔뿔히 나뉜다.

허소라는 이들을 향해 단지도 열지도 않은 채 고향에 잠겨 혼돈과 의혹 속의 성찰을 거듭한다. 소설은 허소라가 한바탕 지옥 꿈을 꾸 뒤 다시 한승원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나누고, 이승 사람들을 위한 지옥에 관한 꿈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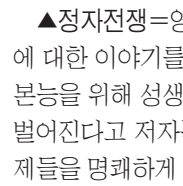
저자는 허소라의 입을 통해, 또는 소설 속 한승원의 입을 통해 ‘소설론’을 펼친다. “모든 소설은 한사코 재미있어야 한다. 작가는 글을 쓰는 동안 성행위를 하듯 그 속의 이야기와 문장 쓰는 재미에 깊이 젖어 있어야 한다. 작가가 쓰면서 재미있어 하지 않은 소설을 독자가 재미있어 할 리 없다.”(본문 34쪽)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독자의 말에서는 “너희(한동림, 한강 남매) 모두를 소설가가 되게 단초를 제공한 이 아버가, 너희로 하여금 ‘아이고, 아버지 금년에도 또 소설책 한 권 내셨네’라고 놀라게 하는 까닭이 이 소설 속에 들어있을 터”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가 말한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의미감”을 찾아내는 것도 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다. (문이당·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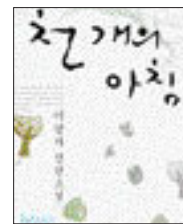
▲스탈린, 강철 권력=영국 옥스퍼드 대학 로버트 서비스 교수가 30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스탈린의 전기문. 저자는 시인이자 독서광이었고, 당한 모욕을 몇 십년이 지난 뒤라도 꼭 갚고야 마는 무시무시한 전제 권력자 스탈린에 대해 해부한다. (교양인·4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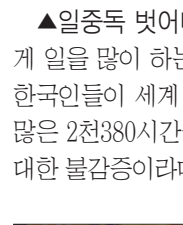
▲정자전쟁=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로빈 베이커가 인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이 쉽게 풀어 썼다. 인간은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해 성생활을 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자전쟁’이 벌어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도발적이고도 생소한 성 관련 명제들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학사·1만8천원)



▲의학 오디세이=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의 등 의학·인문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학사의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썼다. 저자들은 인류의 역사와 질병의 역사였다고 강변한다. (역사비평사·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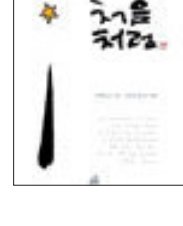
▲천 개의 아침=‘혼자 눈뜨는 아침’의 소설가 이경자씨의 새 장편소설. 항구도시를 무대로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연애소설이다. 누구나 하나쯤 간직하고 있는 ‘사랑’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름·9천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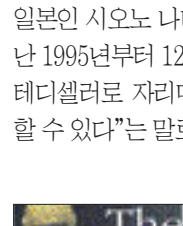
▲일종독 벗어내기=강수용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별나게 일을 많이 하는 한국인들의 일종독 현상을 해부했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세계 주요 22개국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40%나 많은 2천380시간을 일하는 ‘일종독자’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문제제기에 나선다. (메이데이·1만2천원)



▲서른의 당신에게=첫 여성 로펌 대표, 첫 여성 법무부장관, 첫 여성 서울시장 후보 등을 지내며 행보마다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다녔던 강금실씨의 첫 산문집. ‘강금실이 말하는 강금실 이야기’라는 것이 책의 매력이다. (웅진지식하우스·9천800원)



▲처음처럼=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글씨와 그림, 삶의 장안이 한 데 모인 서화예제 이집. 저자가 남산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그린 권화에서, 최근에 그려진 서화작품까지 글 172점, 그림 152점 등을 만날 수 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로마인 이야기 15-로마 세계의 종언=15년에 걸쳐 쓰여진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완결권.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5년부터 12년에 걸쳐 번역·출간돼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저자는 ‘이제야 ‘로마를 알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로 완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길사·1만4천원)



▲금융제국 J.P. 모건(전 2권)=원제 ‘모건 하우스’는 뉴욕의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런던의 모건 그랜펠 등 3개 회사를 아우르는 통칭이다. 저자인 금융 전문저술가 론 처노는 20세기 금융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는 모건 하우스의 분석을 통해 현대 금융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본다. (플래닛·1권 3만2천원 2권 2만원)

6개월이면 중국어가 통합니다.

위대에서 중국어어학원

6개월 중국어 언어연수과정

1. 1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2. 2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3. 3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4. 4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5. 5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6. 6달만이면 중국어 회화 가능함

배우기 30여년 100% 진화

중국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1.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2.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3.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4.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5.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6. 명문대학 입학준비반

www.1111111111.com

222-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필사용 YEM 사인어학원 조성훈 교수 권력 프킴!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880점 만점반 6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등중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중양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인구 ☎082/222-6253